

화학제품 수출입 영향 “벌무”

아르헨티나, 화학제품 무역규모 왜소 ... 디폴트 가능성

2001년 들어 경제불안이 심화되던 아르헨티나가 최근 금융·외환시장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국가 채무이행불능(디폴트)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.

아르헨티나는 2001년3월 기준 총 외채가 1456억달러로 GDP의 56%를 기록했고, 주가도 연초 500선에서 7월 들어서는 300선으로 급락하는 등 위기감이 심화되고 있다.

아르헨티나 경제위기는 경기침체의 장기화, 고정환율제에 따른 폐소화의 고평가,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

아르헨티나의 디폴트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채무만기 연장을 통한 유동성 확보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, 재정적자 축소 등 경제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막대한 외채를 감안할 때 국가부도 위기로 진전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아르헨티나의 수출입 현황

(단위 : 1000달러, %)

구 분	수 출		수 입		무역수지
	금 액	증감률	금 액	증감률	
1995	305,232	-36.1	132,365	93.9	172,867
1996	443,082	45.2	224,343	69.5	218,739
1997	630,264	42.2	252,844	12.7	377,420
1998	584,349	-7.3	126,175	-50.1	458,174
1999	439,428	-24.8	163,381	29.5	276,047
2000	447,517	1.8	191,314	17.1	256,203
2001. 1-4	115,277	-11.7	28,790	-45.6	86,487

우리나라의 아르헨티나 수출은 2000년 4억5000만달러, 투자는 2001년5월 현재 1억1000만달러로 규모가 작아 당장 큰 피해는 예상되지 않으나, 중남미 주변국으로 외환위기가 파급되면 금융위험 비용이 높아져 향후 중남미 수출 및 투자가 상당부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아르헨티나의 수출현황

(단위 : 1000달러, %)

순위	품목명	2000		품목명	2001(1-4)	
		금 액	증감률		금 액	증감률
1	가정용전자	94,910	-5.3	수송기계	21,198	42.6
2	산업용전자	60,217	124.5	가정용전자	19,078	-44.2
3	수송기계	54,327	10.0	전자부품	14,545	5.9
4	직물	47,395	-23.0	산업용전자	12,468	29.8
5	일반기계	40,739	46.5	직물	8,738	-36.7
6	전자부품	35,818	-1.1	유기화학제품	8,460	8.6
7	유기화학제품	28,571	32.1	철강제품	8,352	101.3
8	고무제품	18,844	5.6	일반기계	5,237	-12.5
9	철강제품	10,854	39.2	고무제품	3,535	-55.6
10	섬유사	8,299	1.8	섬유사	2,159	-22.6

이에 산업자원부는 KOTRA 무역관, 수출보험공사 등 관련단체와 아르헨티나 외환위기 관련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.

아르헨티나의 수입현황

(단위 : 1000달러, %)

순위	품목명	2000		품목명	2001(1-4)	
		금 액	증감률		금 액	증감률
1	금속광물	93,754	33.0	금속광물	11,431	-64.1
2	농산물	65,487	18.7	농산물	10,925	71.0
3	수산물	9,140	-13.9	수산물	2,061	-51.9
4	유기화학제품	8,198	35.5	철강제품	1,201	-39.8
5	금속제품	5,380	40.8	제약원료 및 사진용	991	40.2
6	철강제품	3,037	76.7	가죽 및 모피제품	688	67.8
7	제약원료 및 사진용	1,899	13.9	유기화학제품	599	-57.2
8	가죽 및 모피제품	1,783	-25.3	전자부품	247	125.9
9	기타비철금속과	581	328.7	기타비철금속과	236	85.7
10	산업용전자	446	-28.8	임산물	121	71.7

정부는 아르헨티나와 수출 거래시 폐소화 평가절하 등에 대비해 결제조건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, L/C 거래는 주로 현지 10대 은행에 포함된 미국 및 유럽계 은행의 신용장을 요청하며, 외상거래(D/A 및 D/P)는 가능한 한 지양해줄 것을 지적하고 있다.

또 현지 거래기업의 신용도가 낮거나 장기 거래선이 아니면 대금회수를 위한 사전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.

특히, 현재 아르헨티나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주정부 차원의 건설 및 조달 프로젝트 참여는 당분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.

< Chemical Daily News 2001/ 07/ 20 >